중국산 원료 의심에 문방구·김밥집 등 발길 '뚝'

서민 업종 '멜라민 된서리'

멜라민 파문으로 시민들 사이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서민 업종인 문방구와 구멍가게, 김밥집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 가게에서 중국산 원료가 든 과자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출입을 막거나 학생들 스스로 발길을 돌리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커피크림에서도 멜라민이 발견되자 커피 판매액까지 감소하는 등 멜라민 파문이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방구, 김밥집 등 서민 업종 된서리=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자나 음식을 판매하는 문방구나 김밥집 등 서민 업종들이 멜라민 파문 때문에 된서리를 맞고 있다. '중국산' 식품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느끼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곳에서 판매하는 과자 등에 중국산 원료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면서 구입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광산구 S초등학교 인근 문방구는 일주일 전에 비해 매출이 20%가량 감소했다. 특히 과자류와 즉석 판매 음식인 어묵이나 소시지 등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줄었다. 주인 김모(여·44)씨는 "멜라민 보도가 나간 이후 이틀이 지나면서 과자 등을 찾는 아이들이 부쩍 줄었다"고 말했다.

김밥집이나 구멍가게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쌀과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김밥 판매량이 줄고 있으며, 구멍가게에서는 유명회사 과자가 아닌 제품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K김밥집도 멜라민 파동 이후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밥 대신 다른 음식을 찾는 손님들도 생겨나고 있다. 주인 천모(43)씨는 "지난주에 비해 10%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 같다. 심지어 김밥을 구입하면서 중국산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커피믹스·자판기도 판매 급감=과자뿐만 아니라 커피크림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자 크림을 함유한 커피믹스 제품과 커피 자판기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커피믹스 매출이 지난 주보다 10% 줄었으며,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믹스 판매량 또한 10%가량 감소했다. 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 등의 커피믹스 제품들은 멜라민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커피크림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 모 병원에서 자판기업을 하는 박모(여·42)씨는 "하루 3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멜라민 사태 이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필상기자 kps@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학교 앞 문방구나 구멍가게, 김밥집의 매출이 격감하는 등 서민 업종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 한가하기만 하다. /최현배기자 choi@

중국 어선 상당수가 무허가

6배 벌금 안내려 폭력 저항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 상당수가 중국 정부로부터 어업활동 허가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어선' 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무허가 어선'은 우리 해경에 나포될 경우 다른 중국 어선과 달리 벌금이 최소 6배까지 높아 해경의 단속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올해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64척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31척)가 어업활동 허가증이 없는 '무허가 어선'이었다. 지난해 적발된 중국 어선 222척 중 13%인 29척 만이 '무허가 어선'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엄청난 증가 추세다.

지난 2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시도하던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를 숨지게 하고 해경들에게 부상을 입힌 17t급 중국 '15138호' 유자망 어선도 무허가 어선이었다.

이들 무허가 어선은 벌금을 선박주와 선원이 직접 물어야 하는데다 벌금액수도 최고 6배까지 높다.

벌금은 선박 t수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 정부의 보증을 받은 불법조업 어선의 경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다.

그러나 무허가 어선의 경우 적게는 3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목포 해경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50t급 미만의 무허가 어선이라면 중국인 선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3천만원 상당의 벌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무허가 어선'들은 해경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건수는 1천175건(2006년 522건, 2007년 494건, 지난 8월 말까지 159건)이었다.

이중 목포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단속된 건수는 494건,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 단속 경찰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를 있었다. /박지경·최권일 기자 jkpark@

중국 선원 11명 전원 구속

故 박경조 경위 눈물의 영결식

불법조업 어선을 검문 중이던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48) 경위를 숨지게 한 중국인 선원들이 모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박 경위를 숨지게 하고 해경들에게 부상을 입힌 17t급 중국 '15138호' 유자망 어선 선장 허신취안(河新權·36·중국 랴오닝성)씨 등 중국인 선원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및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려던 박 경위 등 한국의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박 경위를 숨지게 하고 일부 해양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선원 가운데 2명이 박 경위를 바다쪽으로 밀쳐내고, 나머지 1명이 배에 있던 삽으로 3~4차례 박 경위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서해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이들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경조(48) 경위의 영결식이 이날 오전 목포 해양경찰서 앞마당에서 엄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장(葬)으로 거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조인현 해양경찰청 차장, 이원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유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약력보고, 대통령 조의금 전달, 조사, 헌화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장에는 부인 이선자씨 등 유족들이 슬픔을 가누지 못해 헌화 도중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해 참석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날 고인에게는 1계급 진급과 옥조근조훈장이 추서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도박 순천시공무원 직위해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순천시 A 과장과 B 과장 등 2명이 직위 해제됐다. 순천시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A 과장 등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순천시내 모 광고사에서 고향 선후배들과 하루에 판돈 250만~35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과 도박을 한 박모씨가 지난 9일 순천시 연향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도박 사실이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특수절도 혐의 너무 가혹했나

은행 딴 시민들 경범죄 적용 잇따라

그동안 과도한 방법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딴 시민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왔던 경찰이 이번에는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를 잇따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은행나무 가로수에 올라가 은행 10㎏을 딴 B(여·63)씨와 B씨의 아들(45)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대나무 2개를 이용해 은행 3kg를 딴 K(71)씨 등 노인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가량의 범칙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그동안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지만 형벌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해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북경비정 추정 선박에 피격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이 북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의해 피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40분께 후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동운 146호가 북한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으로부터 발사된 2발의 포탄을 맞았다.

이 사건으로 요동운호의 선장 쿵모(44)씨가 왼쪽 얼굴과 오른쪽 허벅지 등에 파편을 맞고 우리 해경에 구조신고를 해왔으며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군에 상황을 전파했다. /연합뉴스

로또 14억 도박 등 탕진하고 도둑질

쌍나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19억원의 당첨금을 받았던 20대가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8개월만에 돈을 탕진한 뒤 도둑질을 하다 경찰서행.

○…29일 경남 진해경찰에 따르면 황모(28·마산)씨는 지난 4월부터 소년원 동기인 김모씨와 공모해 금은방을 털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2006년 6월 강도상해 혐의로 수배 중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19억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뗀 14억원 중 1억원으로 변호사를 선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가족들에게 집과 개인택시를 사주고 가게도 차려주었지만 도박과 유흥에 빠져들었다고.

○…결국 황씨는 8개월만에 당첨금 중 세금을 뗀 14억원을 모두 날렸으며, 또 다시 도둑질을 하려다 경찰에 검거. /연합뉴스